

4. 네 번째 애가(4장)

(1) 예루살렘은 왜 멸망하였는가?(거듭)

*예레미야애가4:13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2)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애가4:20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음이며 우
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
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5. 다섯 번째 애가(5장)

*예레미야애가5:1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예레미야애가5:16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적 용〉

오늘 우리의 두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두 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보고 있는가?

JUL-09-2025 수요일 바이블칼리지(Bible College 성경대학)

제24강 예레미야애가,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어찌하여 멸망하였는가?

▣ 바이블 칼리지(Bible College 성경대학) 터다지기

* 예언서 / 대선지서(Major Prophets) + 소선지서(Miner Prophets)

↳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 예언서의 편집은 연대순이 아닌 책별 분량에 따른 것이다.

* 예레미야애가 명칭

(1) 히브리 정경 명칭 / הִקְוָה(에카 / 어찌하여, 어찌할꼬)

↳ 큰 소리로 높여 운다.

(2) 영어 명칭 / Lamentations(비탄, 애도)

※ 애가(הִקְוָה, Lamentations)는 죽은 사람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는 장송곡

A. 기록자, 예레미야 (Jeremiah 여호와께서 던지시다, 세우시다)

;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가운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
을 가졌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살던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로 태어났으며 눈물로 예언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은 예수님과 가장 많
이 닮았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레미야
가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였을 만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
하였다.

B. 이해

1. 예레미야애가는 선지서인가?

엄밀하게 적용할 때 선지서에 포함될 수 없지만 예레미야가 기록하였기 때문
에 대선지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2.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른 애가는 무엇인가?

- (1) 애가는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는 다양한 문학 형태를 포괄해서 일컫는 용어이다.
- (2) 애가는 장례식 때 부르는 장송곡으로 죽은 사람을 두고 부르는 노래이다.
- (3)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직후인 주전 586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른 애가에는 소망이 담겨있는 것은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도 소망은 있음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예레미야애가는 지금도 유대의 애곡자들은 금요일마다 통곡의 벽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으며, 8월 9일 금식절기에는 유대인의 모든 회당에서 읽고 있다.

C. 구조

1. 첫 번째 애가(1장)

(1) 예루살렘의 황폐와 적막

*예레미야애가1:1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
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2) 예루살렘은 왜 멸망하였는가?

*예레미야1:8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2. 두 번째 애가(2장),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

*예레미야 애가2:11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
이로다”

*간(Liver)

- ① 가장 무거운 장기, 가장 중요한 장기/부모를 상징
- ② 정서 또는 기쁨과 용기를 상징(현대적인 용어 Heart)

*예레미야 애가2:14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
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3. 세 번째 애가(3장)

- (1) 어둠(2절)
- (2) 계속된 구타(3절)
- (3) 육체적인 쇠함(4절)
- (4) 포위당한 도시(5절)
- (5) 영원한 어둠(6절)
- (6) 감옥(7절)
- (7) 길이 막히고 평탄하지 않음(9절)
- (8) 몸의 찢김과 적막함(11절)
- (9) 궁수의 화살 과녁(12절)
- (10) 먹을 수 없는 음식과 음료(15절)

*예레미야애가3:2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사야45:7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